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F5

1주차	일시	4월 9일 10 : 30 장소명 :학술관 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윤녕 (2394043)	○
		김덕연 (2394044)	○
		서효리 (2394046)	○
		이인화 (2394037)	○
		윤서현 (2394048)	○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사이먼 싱 지음	진도페이지: 1 p. ~ 158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서효리, 윤서현, 김덕연, 이후진교수님, 정윤녕, 이인화]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정보를 숨기는 것은 범죄인가, 권리인가?" • 내용 : 책에서 암호는 때로는 독립운동, 반정부운동 등 정의로운 목적에도 사용됩니다. • 토론 포인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암호 사용은 정당한가? 국가가 감시 목적으로 암호를 해독할 권리가 있는가? • 인화 :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암호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메신저 암호화는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인권 활동가, 기자 등이 억압받지 않고 활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 서현 : 국가 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테러 계획이나 아동 착취물 공유 등이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음. • 덕연 : 정보 은폐가 무조건 범죄도, 무조건 권리도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 윤녕 : 책에서도 암호는 독립운동가, 군사 전략가, 범죄자 모두에게 쓰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암호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 효리 : 온라인 거래, 금융, 헬스케어, 클라우드 사용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암호에 의존한다.이를 없애거나 국가가 쉽게 해독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개인과 기업 모두 위험해진다.	

2주차	일시	4월 30 일 10 : 30 장소명 :학술관 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윤녕 (2394043)	○
		김덕연 (2394044)	○
		서효리 (2394046)	○
		이인화 (2394037)	○
		윤서현 (2394048)	○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사이먼 싱 지음	진도페이지: 1 p. ~ 158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윤서현, 정윤녕, 김덕연, 이후진교수님, 이인화, 서효리]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암호의 발전은 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생각?" • 내용 :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에니그마 암호와 이를 해독한 앨런 튜링 등. • 토론 포인트: 암호의 발전이 전쟁을 단축했지만, 동시에 해커나 테러리스트도 더 정교한 암호를 쓰고 있다. • 효리 : 동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튜링이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전쟁 기간을 단축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현재는 외교, 군사,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있음. • 덕연 : 비동의. 현대 테러 조직이나 해커 집단도 고급 암호 기술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고 있다. 다크웹이나 랜섬웨어 공격 등은 암호화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범죄. • 서현 : 동의. 하지만, 암호는 보안과 범죄 두 측면 모두에 쓰일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술이지만, 그 자체로 위협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사용자의 의도와 감시체계가 중요하다. • 인화 : 동의. 정보 보호는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된다. 암호가 없다면 권위주의 국가나 검열 시스템이 개인을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윤녕: 동의. 현재 금융 거래, 국가 안보, 의료 기록 등은 모두 암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암호 없이는 해킹, 정보 유출, 경제 혼란이 훨씬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음.	

3주차	일시	5 월 14 일 10 : 30 장소명 :학술관 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윤녕 (2394043)	O
		김덕연 (2394044)	O
		서효리 (2394046)	X
		이인화 (2394037)	O
		윤서현 (2394048)	O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사이먼 싱 지음	진도페이지: 1 p. ~ 158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덕연, 윤서현, 이후진교수님, 이인화, 정윤녕]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일반 시민도 암호에 대해 꼭 배워야 할까?" • 내용 : 책에서 암호는 과거에는 특수한 사람들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메신저에도 쓰인다. • 토론 포인트: 우리는 암호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을까? • 윤녕 : 동의. 스마트폰, 이메일, 인터넷 뱅킹 등 일상 속 거의 모든 활동에 암호화 기술이 사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암호 개념은 누구나 알아야 한다. • 인화 : 비동의. 모든 시민이 전문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배울 필요는 없다. 비밀번호 설정, 2단계 인증, 피싱 구별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이면 충분하다. • 덕연 : 동의. 사회 전반의 보안 수준은 구성원 중 가장 약한 고리에 따라 결정된다. 피싱이나 해킹 피해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 전체의 보안 의식이 중요하다. • 효리 : 비동의. AI와 보안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인은 별도로 암호를 이해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암호 교육보다 시스템 설계자의 책임이 더 크다. • 서현 :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검열 회피 등 시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를 이해해야 한다. 책에서도 암호가 독재나 감시에 저항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만큼, 시민의 권리의식과 연결된 학습이 필요하다.	

4주차	일시	5 월 28 일 10 : 30 장소명 :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윤녕 (2394043)	○
		김덕연 (2394044)	○
		서효리 (2394046)	○
		이인화 (2394037)	○
		윤서현 (2394048)	○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사이먼 싱 지음	진도페이지: 1 p. ~ 158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인화, 서효리, 윤서현, 이후진교수님, 정윤녕, 김덕연]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AI 시대에 인간의 암호 기술은 여전히 유효할까?" • 내용 연결: 책에서는 인간 중심의 암호 설계와 해독 기술을 다룸. • 토론 포인트: 이제는 AI가 암호를 만들고 해독하는 시대인데,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효리 :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암호를 빠르게 해독하거나, 인간보다 더 정교한 암호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간의 역할이 줄고, 암호 분야는 AI 간 경쟁의 영역이 될 수 있다. • 윤녕 : AI는 도구일 뿐, 설계 원리와 암호의 목적, 윤리적 사용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암호 체계의 설계 철학이나 보안 정책 결정 등에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 덕연 : AI는 규칙 기반 암호에는 강하지만, 인간의 감성, 맥락, 창의성이 들어간 암호(예: 시, 은유, 문화 코드)는 해독이 어렵다. 따라서 인간만의 사고방식을 이용한 암호가 오히려 보안에 강점이 될 수 있다. • 인화 :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암호가 뚫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인간의 실수(약한 비밀번호, 잘못된 설정 등)다. 즉, 암호 기술을 관리·운용하는 인간의 보안 의식은 여전히 핵심이다. • 서현 : AI가 스스로 암호를 만들고 통신하게 된다면, 인간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블랙박스 암호화’는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감시하고 조절할 시스템이 필수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정윤녕 (2394043)	수업 시간에 시간상의 제약으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암호 관련 이야기를 『비밀의 언어』를 읽으며 보완하고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독서토론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암호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울러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참고 사이트들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정보도 넓힐 수 있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2	김덕연 (2394044)	처음엔 그냥 암호학에 대한 책일 거라고 생각했다. 수학이나 코드 같은 어려운 얘기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읽을수록 이 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느꼈다. 생명을 걸고 메시지를 숨겨야 했던 전쟁 속 군인들, 억압 속에서도 목소리를 전하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 하나로 평생을 암호에 바친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사이먼 싱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창의성과 집요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는 비밀번호나 메신저 암호화 기술도 사실은 이런 긴 역사의 끝에 있는 거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 독서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정말 흥미로웠다. 누군가는 이 책을 통해 ‘정보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믿음과 배신’을 읽어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즐거웠다. 읽고 나니, 암호는 단지 정보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비밀의 언어’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다. 이 책은 단순한 과학 교양서를 넘어서, 사람과 시대를 잇는 감정의 코드였다고 생각한다.
	3	서효리 (2394046)	『비밀의 언어: 암호의 역사와 과학』을 읽고 암호가 단순한 퍼즐이 아닌 역사와 인류의 흐름을 바꾼 도구라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고대 암호부터 현대의 RSA까지를 흥미롭게 풀어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에니그마와 튜링의 이야기는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준 점이 좋았고, 직접 암호를 풀어보는 재미도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암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커졌다.
	4	이인화 (2394047)	암호에 대해 다양한 토론 및 사담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보안에 관한 정보 및 뉴스 등 최신동향을 알려주셔서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항상 질문시간을 만들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본 과 신입생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암호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 같은 가치와도 연결된다는 의견을 들었을때, 암호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	윤서현 (2394048)	암호라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를 흥미롭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이라 지루하지 않게 암호에 대해 더 알게되는 시간이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앨런 튜링의 이야기였다. 암호 해독이라는 작업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전쟁의 흐름까지 바꿨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다. 암호학이 실제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암호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생겼다.